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KMI 동향분석

VOL.214
2025 SEPTEMBER

발간년월 2025년 9월(통권 제214호)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조정희
감 수 윤성순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기획조정본부 성과홍보실 **홈페이지** www.kmi.re.kr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우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닌 집필진의 견해입니다.

외국인 해양관광 소비 : 1조 2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3% 증가

최일선 해양관광·문화연구실장
(ilsunchoi@kmi.re.kr/051-797-4727)
이슬기 해양관광·문화연구실 전문연구원
(sglee84@kmi.re.kr/051-797-4768)
김예림 해양관광·문화연구실 전문연구원
(yelimkim@kmi.re.kr/051-797-4797)
황태건 해양관광·문화연구실 전문연구원
(htk@kmi.re.kr/051-797-4784)

2024년 우리나라 외국인 관광시장은 소비 규모가 8조 7,59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3% 증가되었으며, 입국자 수는 1,637만 명으로 2019년 고점에 근접하면서 뚜렷한 양적 회복세를 보였다. 이 가운데 연안지역에서 발생한 외국인 관광 소비는 1조 258억 원으로 전체 외국인 관광 소비의 약 11.7%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된다('23년 10.4% → '24년 +1.3%p). 규모 면에서는 내국인의 연안지역 관광 소비(38조 9,208억 원)가 여전히 절대우위이나, 외국인의 1회 평균 결제금액이 88,739원으로 내국인 22,719원의 약 3.9배에 달해 고객 단가 측면에서의 전략적 가치가 재확인되었다.

수도권 편중은 지속되었다. 2024년 외국인 관광 소비의 65.3%가 서울에 집중되었고, 이어 인천(9.7%), 부산(8.5%), 경기(7.7%)가 뒤를 이어 수도권 합계 약 83%를 차지했다. 이는 외국인 입국 경로가 인천공항(67.3%)과 김포공항(6.4%)을 중심으로 압도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 반면 지방 관문공항인 김해공항(7.2%), 제주공항(6.8%), 대구공항(0.7%)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 권역 간 수요 분산이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연안지역만 보면 부산(42.1%)과 제주(24.7%)가 외국인 해양관광 소비의 양대 축을 형성했으며, 인천은 2023년 781억 원에서 2024년 1,871억 원으로 139.6% 급증하며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부산은 2023년 대비 숙박 비중은 감소(46.3%→38.1%)하고 소매·유통 비중은 증가(38.3%→45.3%)했으며, 제주는 서귀포가 숙박 중심(67.9%), 제주시가 소매·유통 중심(48.2%)으로 이중구조를 나타냈다.

해양관광(관광 필수 업종) 집중도는 여전히 높았다. 2024년 연안 외국인 소비 중 숙박이 51.5%(5,286억 원)로 가장 많고 소매·유통이 30.9%, 음식이 17.3%, 여가오락이 0.3% 순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내국인의 음식(58.3%)과 소매·유통(38.4%) 중심 소비 패턴과 달리, 외국인은 체류·숙박 중심 패턴이 지속됨을 보여준다.

성장세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연안지역 외국인 전체 소비는 2023년 8,709억 원에서 2024년 1조 2,575억 원으로 44.3% 증가했고, 해양관광 소비는 같은 기간 7,207억 원에서 1조 258억 원으로 42.3% 늘어나며 모두 두 자릿수 이상 성장했다. 이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율(48.4%)과 궤를 같이하며, 수요 확대가 소비 확대로 연결되었음을 시사한다. 계절별로는 외국인이 가을(30.5%)과 여름(30.0%)에 집중되는 성수기 편중이 뚜렷했으며, 겨울은 17.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내국인이 사계절 균형적 소비를 보이는 것과 대비된다. 이는 외국인 대상 성수기 집중형 상품과 동절기 보완형 상품의 병행 설계 필요성을 보여준다.

국적별 연안지역 외국인 관광 소비 비중은 싱가포르(19.0%), 미국(16.3%), 대만(14.3%) 순으로 나타나 2023년과 동일한 구도를 유지했다. 특히 대만의 소비 금액은 전년 대비 106.3% 증가했고, 일본은 229.3% 급증했다. 몽골은 812.7%가 급상승하며 상위 10위권(1.6%)에 신규 진입하였다. 지역별로는 미국과 싱가포르가 다수 지역의 핵심 소비층으로 나타났으며, 인천에서는 일본(33.9%), 부산에서는 대만(22.4%)이 1위를 기록하는 등 지역·국적별 분화가 관찰되었다.

2023년에 이어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해양관광시장의 소비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소비가 여전히 서울·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연안지역 내에서는 부산과 제주에 편중되는 구조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타 연안권으로의 수요 확산이 절실하며, 단순 숙박·쇼핑 중심을 넘어 지역별 특화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일본 관광객은 수도권 중심의 단기 체류와 미식 활동을 선호하고, 중국 관광객은 휴양·위락 중심의 체류형 관광 성향을 보이는 만큼,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정밀 타겟팅 전략이 요구된다.

또한 해양관광에서도 K-컬처를 접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의 글로벌 흥행과 서울 외국인 관광객 역대 최고치 기록은 여전히 K-컬처가 관광 수요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이를 연안지역과 접목해 K-팝 페스티벌, 촬영지 투어, K-푸드 해양축제 등으로 확장한다면 젊은 글로벌 팬덤을 연안지역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경쟁력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해양관광 정책이 내수시장 중심에 머물러 있는 한계를 넘어, 외국인 해양관광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2025년 시행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에 따른 제1차 해양레저관광 진흥 종합계획에는 외국인 관광 수요를 반영한 접근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내 수요 확대와 글로벌 시장 대응을 동시에 견인하는 체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빅데이터 기반 외국인 해양관광시장 분석 개요

■ 나이스지니데이타(주)가 제공한 외국인 대상 상권매출 및 소비행태 분석 실시

- 기간 및 대상

· 기간: 2024년 기준 해양·연안지역의 행정동 491개

· 대상: 2024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12개월)

* 2023년 데이터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기존 동향분석(제200호, 2024.8)자료 활용

- 방법 및 활용데이터

· 분석방법: 나이스지니데이타(주)가 제공한 외국인 신용카드 매출 데이터를 활용하여, 491개 행정동 내 해양관광 관련 업종 전체 사업자의 매출을 집계·분석

· 해양관광 관련 업종 범위: 해양관광 활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숙박, 여가·오락, 음식, 소매·유통 업종을 중심으로 선정함. 단, 분석대상 지역에서 업종별 표본 점포 수가 3개 미만인 경우는 제외

〈표 1〉 지역 해양관광 영향효과 분석 업종

대분류	중분류
소매·유통	음/식료품소매, 의복/의류, 패션잡화, 스포츠/레저용품, 종합소매점 등
여가오락	취미/오락, 요가/마사지 등
음식	한식, 중식, 양식, 일식, 수산물요리, 고기요리, 커피/음료, 주점 등
숙박	일반호텔, 기타숙박, 리조트, 모텔/여관, 펜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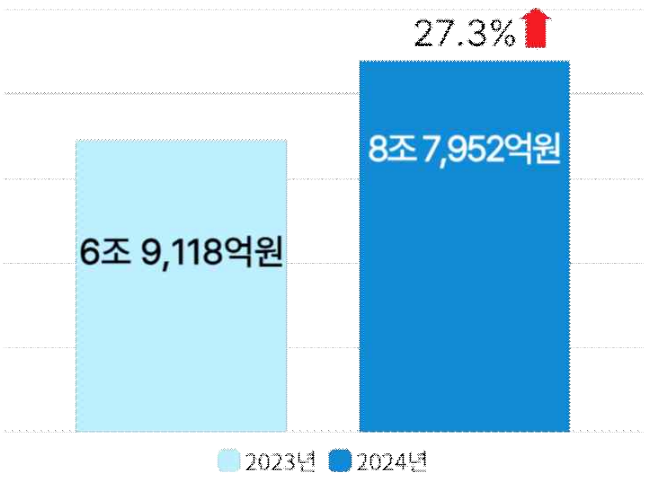
자료: 나이스지니데이타(주) 참고하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외국인 해양관광시장 소비규모 분석

■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관광시장 소비 분석[1)]

- 2024년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관광시장의 소비 규모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해외 관광 수요의 본격적 회복에 힘입어 약 8조 7,592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전년 대비 약 27.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 같은 기간 외국인 관광객 수는 약 1,637만 명으로, 코로나19 이전 최대치였던 2019년 1,750만 명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회복하며 양적 성장세를 뚜렷하게 보여줌[2)]

〈그림 1〉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관광시장 소비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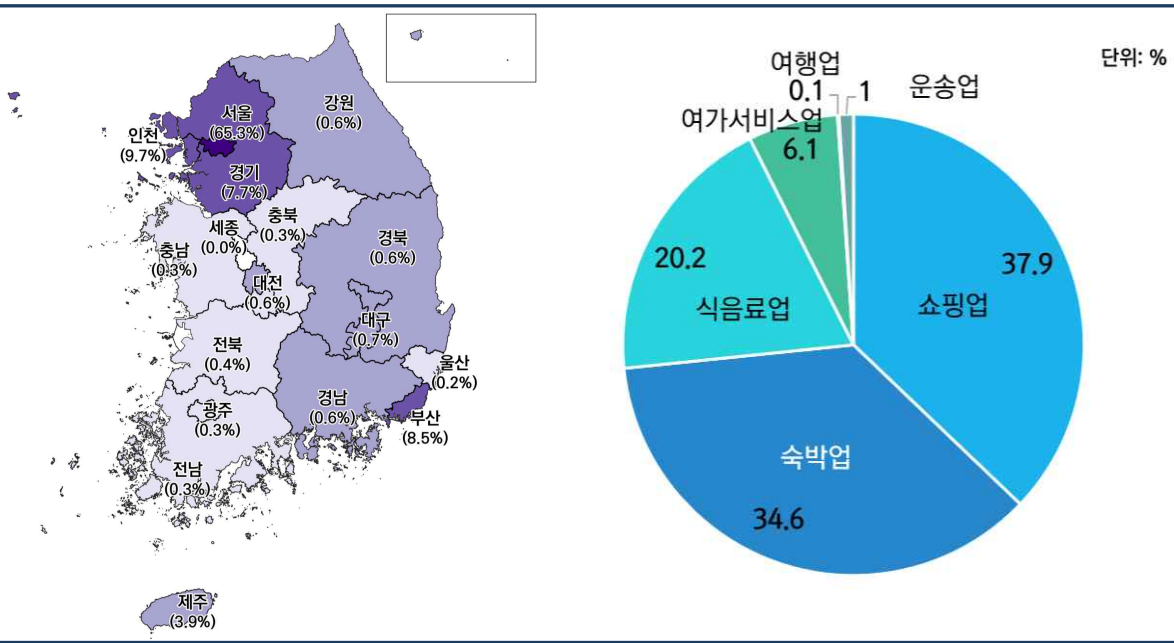


자료: 한국관광데이터랩을 참고하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관광소비의 65.3%가 서울에 집중되었고, 인천(9.7%), 부산(8.5%), 경기(7.7%)가 뒤를 이어, 결과적으로 약 83%가 수도권에 편중되는 구조를 나타냄
- 외국인 입국 경로 또한 인천공항(67.3%)과 김포공항(6.4%)을 중심으로 압도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반면 지방 관문공항인 김해공항(7.2%), 제주공항(6.8%), 대구공항(0.7%)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 권역 간 수요 분산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3)]
- 관광업종별 소비 비중은 쇼핑업(37.9%), 숙박업(34.6%), 식음료업(20.2%) 순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을 중심으로 한 쇼핑 관련 활동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1) 해당 자료는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내 외국인 신용카드 매출액 빅데이터를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해양관광시장 분석 결과와의 정량적 비교는 한계가 있으나, 시장 전반의 소비 흐름과 트렌드 변화를 파악하는 비교분석 차원에서 활용함
2)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내 방한외래관광객 추이 검색. https://datalab.visitkorea.or.kr/datalab/portal/nat/getForTourForm.do(검색일: 2025.8.20)
3)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내 방한외래관광객 추이 검색. https://datalab.visitkorea.or.kr/datalab/portal/ts/getEntcnyFrgnCust2Form.do#(검색일: 2025.9.8)

〈그림 2〉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관광시장 소비규모 지역별 비중과 업종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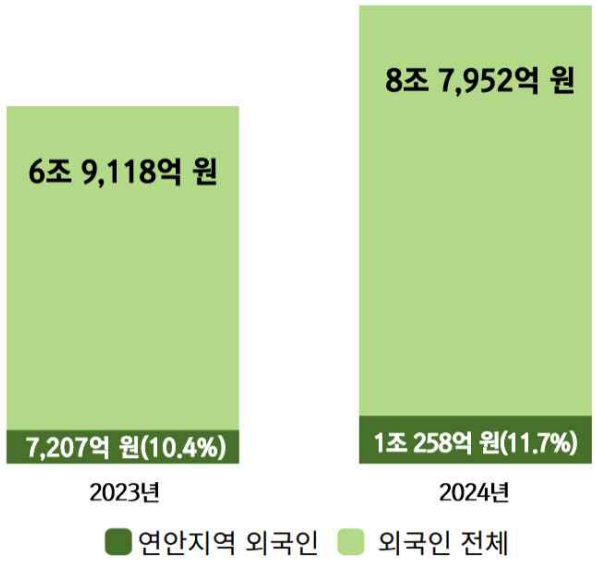


자료: 한국관광데이터랩을 참고하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 전체 외국인 관광 소비 중, 연안지역 발생 소비는 11.7% 수준

- 앞서 제시한 전체 외국인 관광 소비 데이터와 연안지역 외국인 관광 소비를 비교해 보면, 2023년의 경우 연안지역 관광 소비가 전체의 약 10.4%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되며, 2024년에는 전년 대비 1.3%p 상승한 11.7% 수준으로 확대된 것으로 분석됨

〈그림 3〉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관광시장과 연안지역 관광시장 소비규모 비교



자료: 한국관광데이터랩과 나이스지니데이타(주)를 참고하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 2024년 외국인 연안지역 소비, 규모에 비해 고부가·관광 집중형 특성 뚜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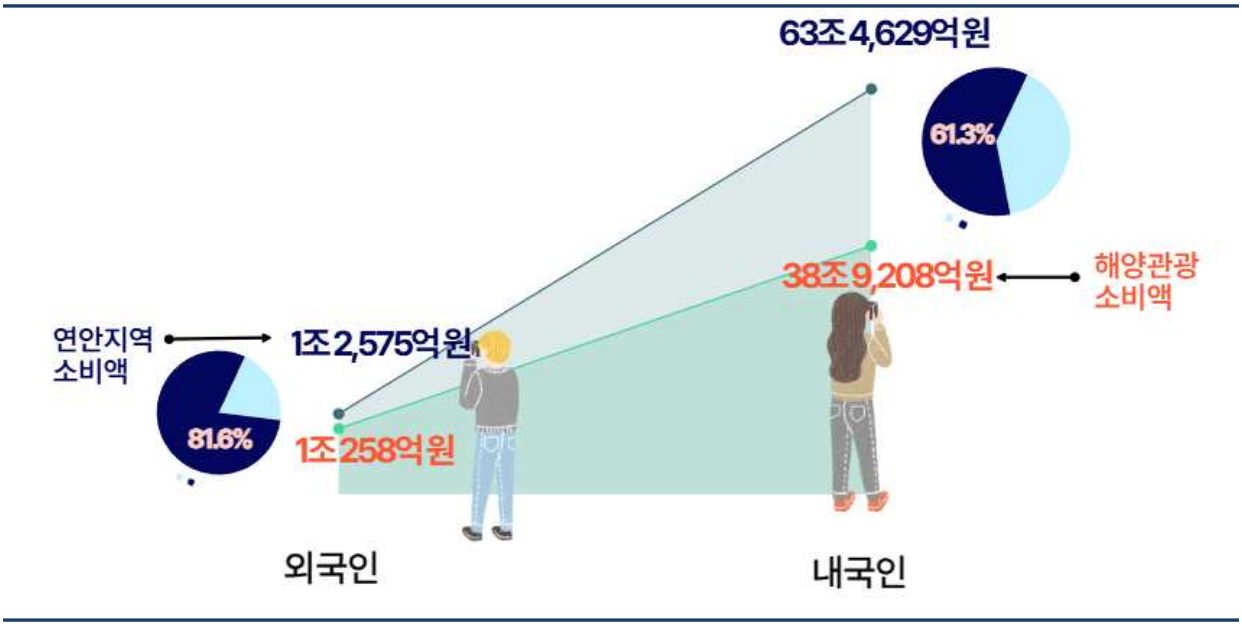
- 2024년 외국인의 연안지역 전체 소비액은 1조 2,575억 원으로[4], 같은 기간 내국인 연안지역 소비액(63조 4,629억 원)의 약 2%에 불과함. 규모 면에서는 내국인 소비가 외국인 대비 50배 이상 크지만, 외국인 시장은 높은 지출 특성에 기반한 전략적 가치가 있는 틈새시장으로 평가됨

- 실제로 외국인은 1인당 결제금액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임. 2024년 외국인 관광업종 결제건수는 1,156만 건으로 전년 대비 약 42% 증가하며 활발한 소비 활동을 보였고, 1인당 결제금액은 88,739원으로 내국인(22,719원)의 약 3.9배에 달함. 이는 외국인 시장이 절대 규모는 작지만, 객단가가 높은 고부가가치 소비시장임을 시사함

- 외국인의 연안지역 소비 중 해양관광 관련 업종 매출은 1조 258억 원(81.6%)으로, 전체 소비가 숙박·음식·여가오락·소매 등 관광 필수 업종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임. 반면 내국인의 해양관광 관련 소비는 38조 9,208억 원(61.3%)으로 관광소비 외에도 생활 서비스가 병행되는 구조임

- 이는 외국인의 소비가 '관광 필수 업종 중심의 집중형 소비' 구조를 보이는 데 비해, 내국인은 생활과 관광이 혼재된 '분산형 소비' 구조임을 보여줌

〈그림 4〉 외국인과 내국인의 연안지역 소비 규모 비교(2024년 기준)



자료: 나이스지니데이타(주) 참고하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4) 연안지역 전체 소비 규모는 해양관광 관련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 주민의 생활·교육·의료 서비스 등 지역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지출을 포함하고 있음

〈그림 5〉 연안지역 외국인 관광객과 내국인 관광객의 1회 평균 결제금액 비교(2024년 기준)

자료: 나이스지니데이타(주) 참고하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 2024년 외국인 해양관광 소비, 내국인 대비 가을·여름 집중

- 외국인과 내국인의 계절별 해양관광 소비 분포를 비교해보면, 내국인은 봄(25.0%)·여름(26.4%)·가을(25.1%)·겨울(23.4%)로 계절별 소비가 비교적 균형 있게 분포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은 가을(30.5%)과 여름(30.0%)에 소비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특히 가을철 소비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가을이 매력적인 여행 시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겨울철 소비는 17.1%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함

〈그림 6〉 연안지역 외국인 관광객과 내국인 관광객의 계절별 소비 비중 비교(2024년 기준)

자료: 나이스지니데이타(주) 참고하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 2024년 외국인 연안지역 관광소비 전년 대비 42.3% 급증하며 성장세 뚜렷

- 외국인 연안지역 전체 소비는 2023년 8,709억 원에서 2024년 1조 2,575억 원으로 44.3% 증가함. 같은 기간 해양관광 관련 업종 매출은 7,207억 원에서 1조 258억 원으로 42.3% 증가하며, 절대 규모 측면에서 뚜렷한 성장세를 기록함

- 이러한 결과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외국인 입국자 수 증가율(2024년 연간 입국자 수는 16,369,629명으로 2023년(11,031,665명) 대비 48.4% 증가)과도 일치함[5]. 즉, 방한 외국인 수의 급증이 연안지역 소비 및 해양관광시장 확대를 견인한 것으로 해석되며, 본 분석 결과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볼 수 있음

- 다만 해양관광 관련 업종 비중은 2023년 82.8%에서 2024년 81.6%로 소폭 하락함. 이는 외국인 소비가 여전히 관광 필수 업종에 집중되어 있지만, 생활·기타 영역으로 소비가 일부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함

〈그림 7〉 2023년 대비 2024년 외국인 해양관광 업종 매출액 변화

자료: 나이스지니데이타(주) 참고하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 외국인 해양관광 소비, 숙박 중심(51.5%) 구조 지속·내국인은 음식(58.4%) 위주 소비

- 외국인 관광객의 업종별 소비를 보면, 2024년 숙박업이 5,286억 원(51.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소매/유통업이 3,173억 원(30.9%), 음식업이 1,774억 원(17.3%), 여가오락은 26억 원(0.3%)에 불과했음

- 2023년과 비교하면, 숙박업은 3,818억 원 → 5,286억 원, 소매/유통업은 2,009억 원 → 3,173억 원, 음식업은 1,360억 원 → 1,774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전반적으로 숙박 중심 구조는 유지되었으나 소매/유통 비중이 다소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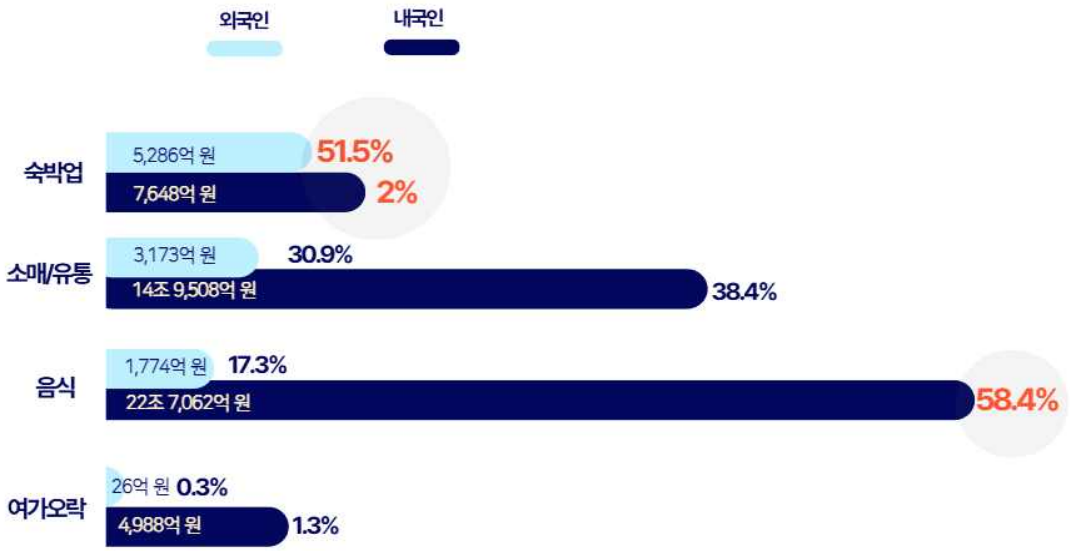
5) 문화체육관광부(2025).「2024년 외래관광객 조사 보고서」. p. 18.

- 반면 내국인은 2024년 음식업에서 22조 7,062억 원(58.4%)을 소비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소매/유통업이 14조 9,508억 원(38.4%)으로 뒤를 이음. 숙박업(2%)과 여가오락(1.3%)은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해 외국인과 내국인의 소비패턴은 정반대 양상을 보임

- 이러한 결과는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가 숙박·쇼핑에 집중되는 체류형 소비 구조인 반면, 내국인은 음식 중심의 일상·체험형 소비 구조임을 보여줌. 향후 외국인 유치를 위해서는 숙박 인프라 확충 및 품질 개선이 핵심이며, 동시에 쇼핑과 레저·문화 콘텐츠의 다양화를 통해 외국인의 소비 영역을 넓히는 전략이 필요함

〈그림 8〉 연안지역 외국인 관광객과 내국인 관광객 관광업종 매출액 비교(2024년 기준)

%: 전체 매출액 중 해당 업종 비중



자료: 나이스지니데이타(주) 참고하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 외국인의 연안지역 관광 소비 국가별 비중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1위 싱가포르(19.0%), 2위 미국 (16.3%), 3위 대만(14.3%) 순으로 분석

- 2024년 우리나라 연안지역 외국인 관광객의 국적별 소비 비중을 살펴보면, 1위~3위까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싱가포르가 1위(19.0%), 미국이 2위(16.3%), 대만이 3위(14.3%)를 차지했고, 특히 대만은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106.3% 증가하고 소비비중이 더욱 커지면서('23년 9.9% → '24년 14.3%) 주요 소비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함

- 이는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출입국 통계 기준 2024년 외국인 상위 5개국(1위 중국, 2위 일본, 3위 대만, 4위 미국, 5위 홍콩)과 차이를 보였지만,[6] 지난해와 비교해 일본 관광객의 매출액은 229.3% 증가했고, 소비비중도 크게 증가함('23년 4.1% → '24년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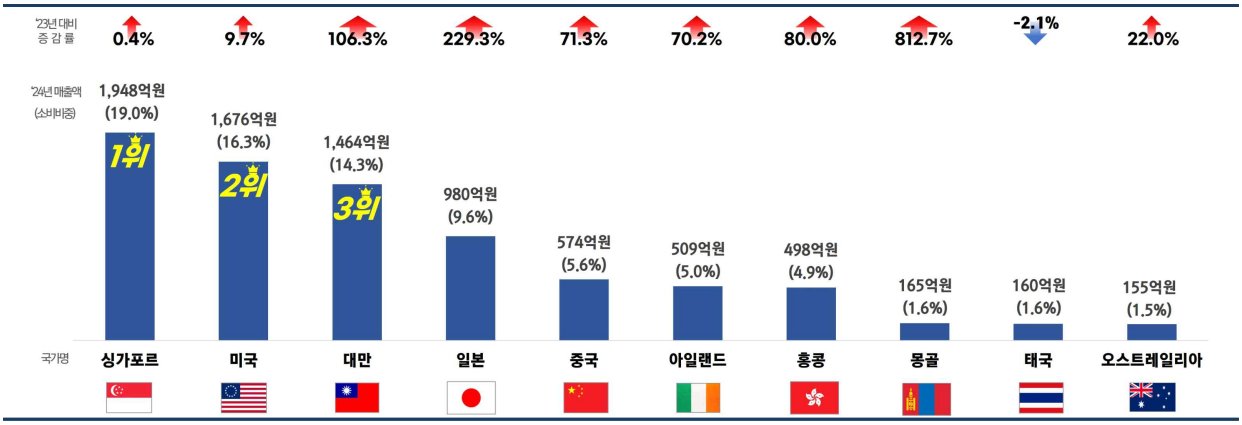
6)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출입국 통계(검색일: 2025. 9. 1.)

- 주목할 만한 점은 지난해에는 상위 10개국에 포함되지 않았던 몽골이 2023년 대비 매출액이 812.7% 증가하면서 2024년에는 9위권(1.6%)에 진입하면서 새로운 소비층으로 부상함

- 상위 10개국 가운데 7개국이 아시아 국가로 2023년(6개국)보다 그 비중이 증가했고, 이들의 연안지역 소비액은 5,789억 원에 달하며, 상위 10개국 매출액의 66.5%의 비중을 차지함

- 외국인 관광객의 연안지역 소비비중 상위 10개국 중에서 태국은 유일하게 2023년 대비 매출액이 -2.1% 감소함

〈그림 9〉 외국인의 연안지역 관광소비 상위 10개국



자료: 나이스지니데이타(주) 참고하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 연안지역별 소비 구조, 부산·제주 중심 집중 심화 및 인천의 성장 가속화

- 2024년 연안지역별 소비 규모는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성장세를 보였으며, 그중에서도 부산연안과 제주연안이 전체 소비의 약 67%를 차지하며 해양관광의 양대 축으로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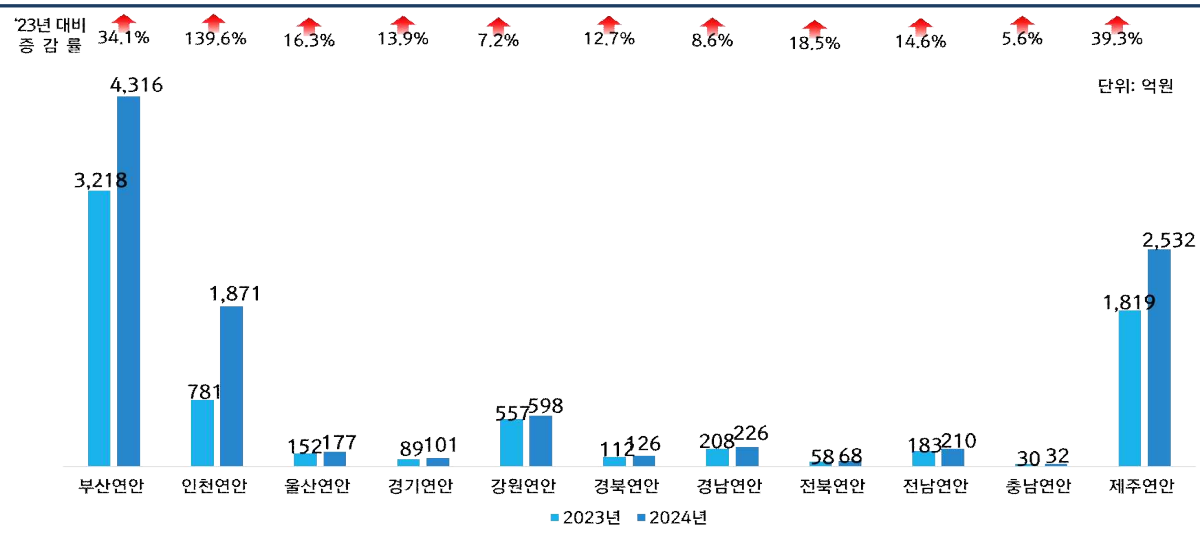
- 부산연안은 4,316억 원으로 전국 소비의 42.1%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고, 제주연안은 2,532억 원(24.7%)으로 2위를 기록함

- 인천연안은 전년 781억 원에서 1,871억 원으로 139.6% 급증하며 전국 3위로 부상함. 이는 주요 연안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여, 수도권 해양관광의 성장 잠재력을 입증함

- 강원연안은 557억 원에서 598억 원으로 7.2% 증가에 그치며 성장세가 둔화되었고, 경북연안(12.7%), 경남연안(8.6%) 등도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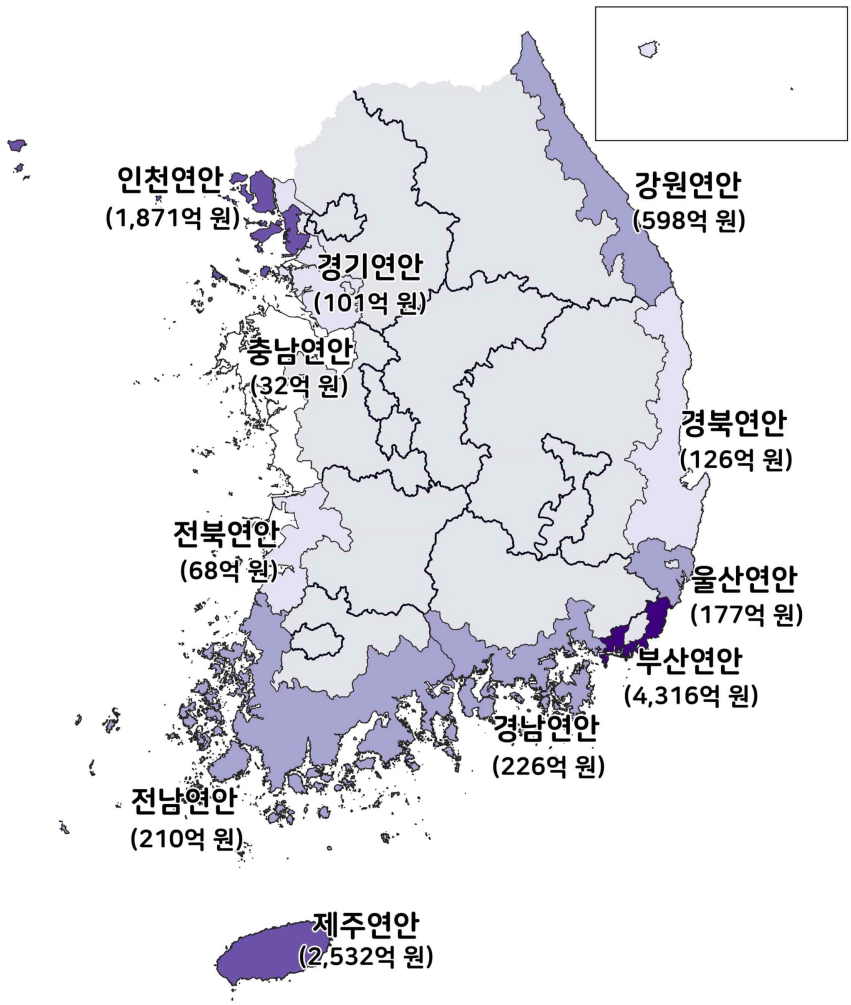
- 반면, 충남연안(32억 원, +5.8%), 전북연안(68억 원, +18.5%) 등 일부 지역은 여전히 미미한 소비 규모를 기록하였음

〈그림 10〉 연안지역 X 연도별 외국인 해양관광시장 규모 변화



자료: 나이스지니데이타(주) 참고하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그림 11〉 2024년 연안지역 외국인 해양관광시장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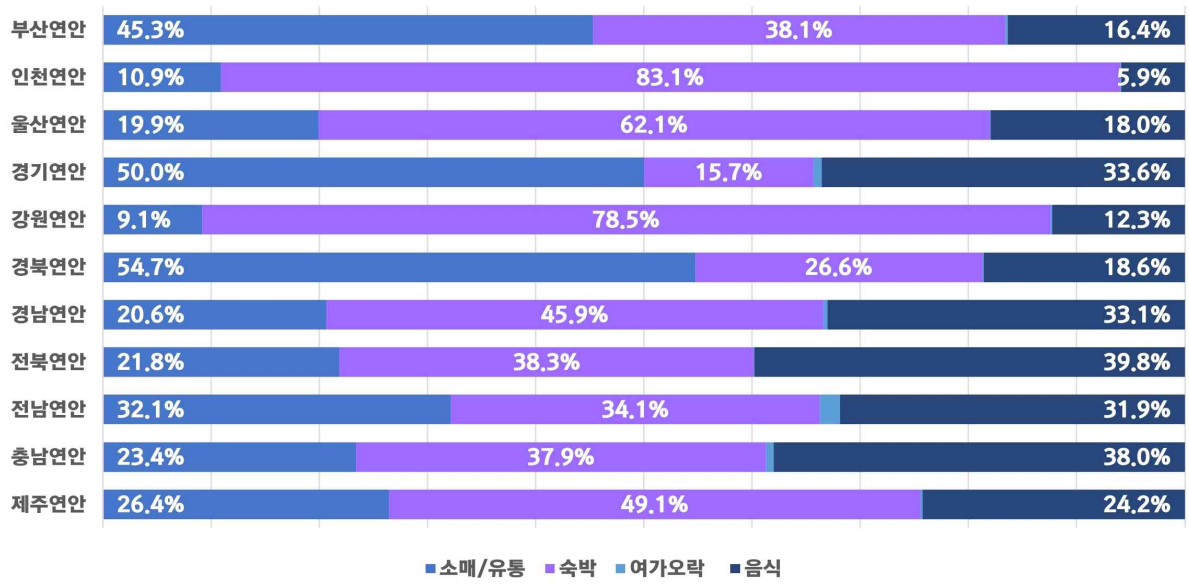
자료: 나이스지니데이타(주) 참고하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연안지역별 외국인 해양관광 소비트렌드 분석

■ 외국인 관광 소비에서 인천연안은 숙박 중심지로, 부산은 소매·유통 중심으로 부상

- 2024년 연안지역 외국인 관광 소비의 업종별 구조를 분석한 결과, 인천연안(83.1%)과 강원연안(78.5%)이 숙박업종 지출 비중에서 다른 지역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주목할 부분은, 2023년 대비 2024년 인천연안의 외국인 숙박업종 소비비중이 크게 늘어('23년 68.7% → '24년 83.1%) 외국인 해양관광객의 소비 중 숙박 지출이 급격히 확대되었다는 점임
- 숙박업종 소비액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연안이 1,644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인천연안이 1,555억 원, 제주연안이 1,245억 원순으로 높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부산연안과 제주연안은 여전히 주요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하고 있음
- 음식업종에서는 2024년 전북연안(39.8%)과 충남연안(38.0%)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해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는 소비 패턴을 가지고 있음
- 소매/유통업종의 경우 2024년 기준 소비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연안(54.7%)이었으며, 이어 경기연안(50.0%)과 부산연안(45.3%) 순으로 나타났고, 특히 지난해에 비해 부산연안과 경북연안의 소매/유통업종 소비 비중이 증가함
- 한편 부산연안은 2023년에 비해 숙박업종 소비 비중이 감소했으나('23년 46.3% → '24년 38.1%), 소매/유통업종 비중은 크게 증가하면서('23년 38.3% → '24년 45.3%) 변화된 양상을 보임

〈그림 12〉 연안지역 X 업종별 외국인 해양관광시장 소비트렌드 (2024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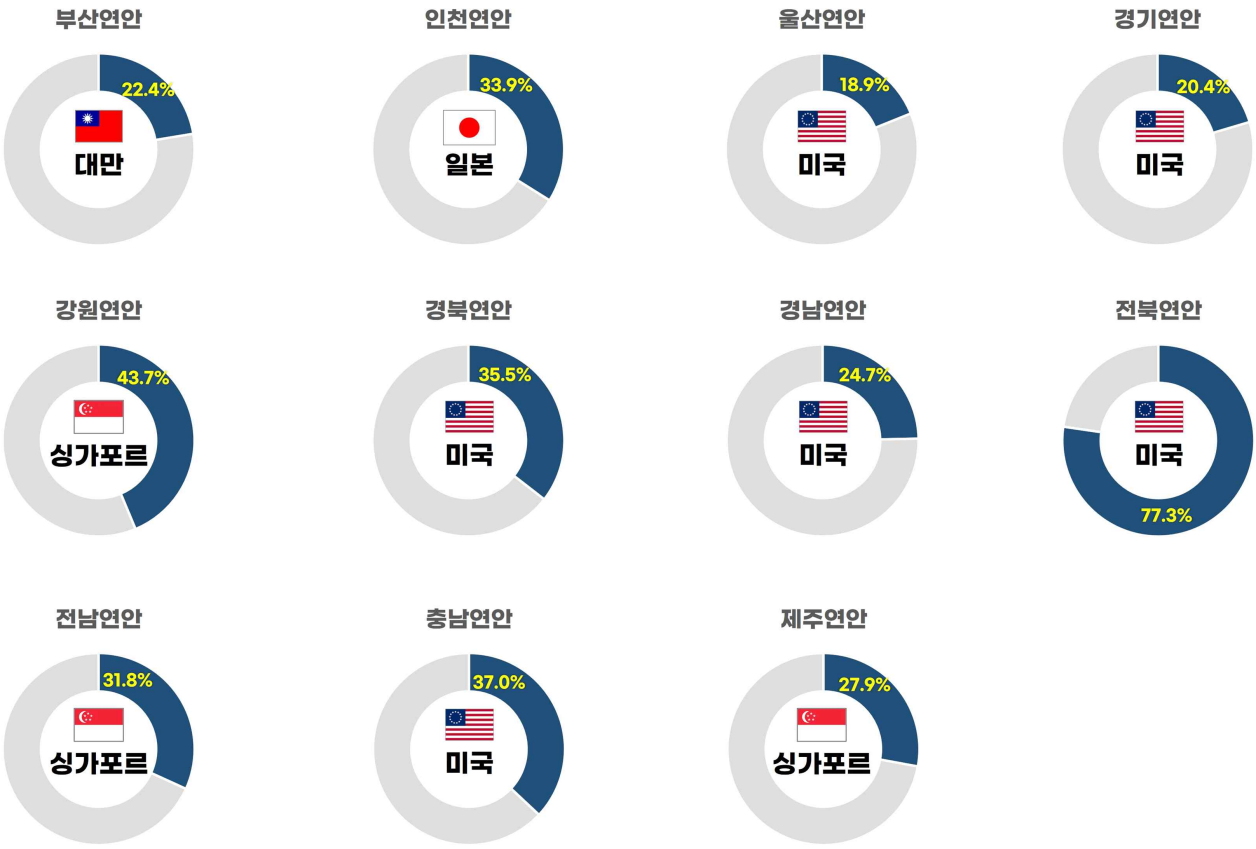


자료: 나이스지니데이타(주) 참고하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 대부분 연안지역에서 미국과 싱가포르 관광객이 주요 소비층으로 나타났고, 일부 지역은 일본·대만이 1위

- 2024년 연안지역 외국인 관광 소비 비중을 분석한 결과, 미국과 싱가포르 관광객이 대부분 연안지역에서 핵심 소비층으로 나타남
- 미국 관광객은 전북, 충남, 경북, 경남, 경기, 울산 등 7개 연안지역에서 소비 비중 1위를 차지했고, 특히 전북연안에서는 전체 소비의 77.3%를 차지하면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임
- 싱가포르 관광객은 강원연안에서 가장 높은 소비 비중을 보였고(43.7%), 이어 전남(31.8%), 제주(29.7%) 등 연안지역에서도 소비 비중 1위를 기록
- 주목할 점은 2023년에는 미국과 싱가포르 관광객이 연안지역 전반에서 소비비중 1위를 양분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2024년에는 일본 관광객이 인천연안(33.9%)에서, 대만 관광객이 부산연안 (22.4%)에서 각각 1위를 기록하는 등 주요 소비 국가가 점차 다변화되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임

〈그림 13〉 연안지역 x 국적별 소비 비중 1위 국가 (2024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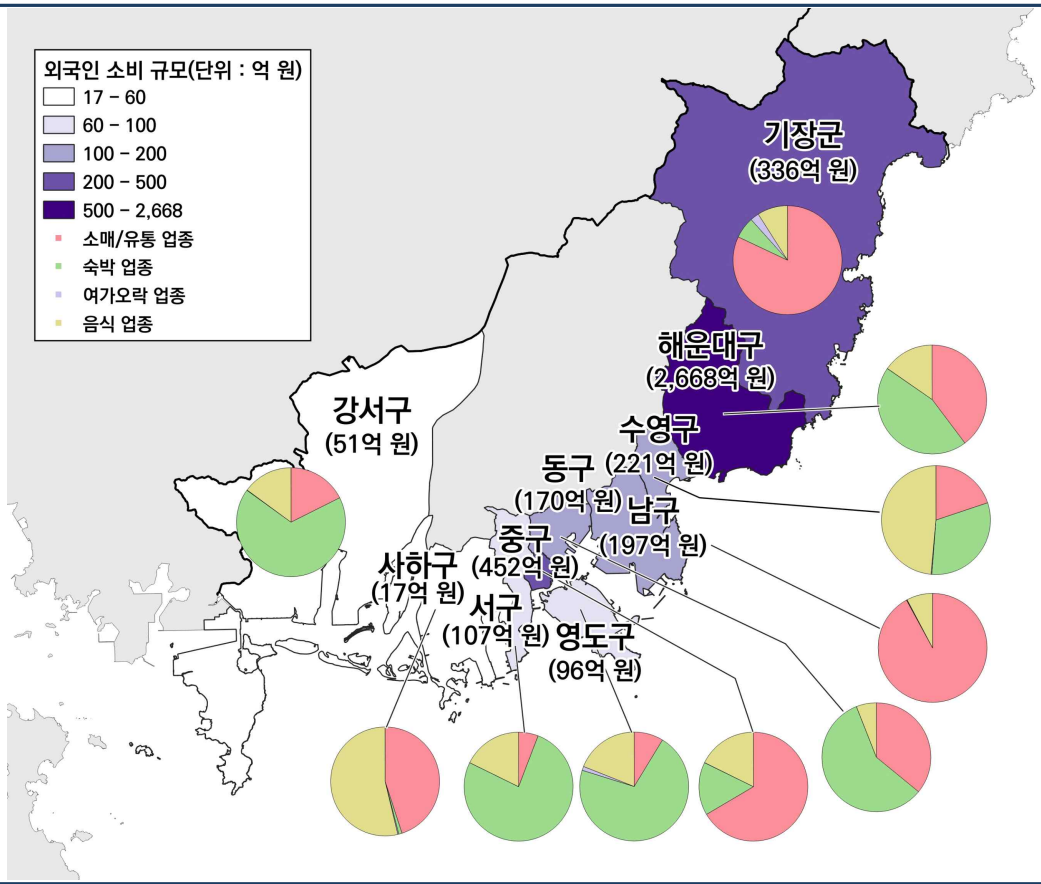
자료: 나이스지니데이타(주) 참고하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부산·제주·인천 연안 외국인 해양관광 소비트렌드 분석

■ 부산연안 외국인 관광 소비 해운대구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 부산연안 내에서는 해운대구의 외국인 관광 소비규모가 2,668억 원으로 부산연안 전체 중 61.8%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으며, 중구가 10.5%, 기장군이 7.8% 순으로 나타남
- 해운대구의 외국인 관광 소비는 숙박업종(44.9%)과, 소매/유통업종(39.7%)의 비중이 높아 외국인들이 해운대구를 중심으로 체류형 관광을 하는 것으로 보임
- 남구, 기장군, 중구는 소매/유통업종의 비중이 각각 92.1%, 82.0%, 66.5%로 높게 나타나며, 해당 지역에는 대학 주변 상가, 자갈치시장, BIFF광장, 롯데 아울렛 등 지역 내 주요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는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해석됨

〈그림 14〉 부산연안 외국인 해양관광 소비 업종별 분포(2024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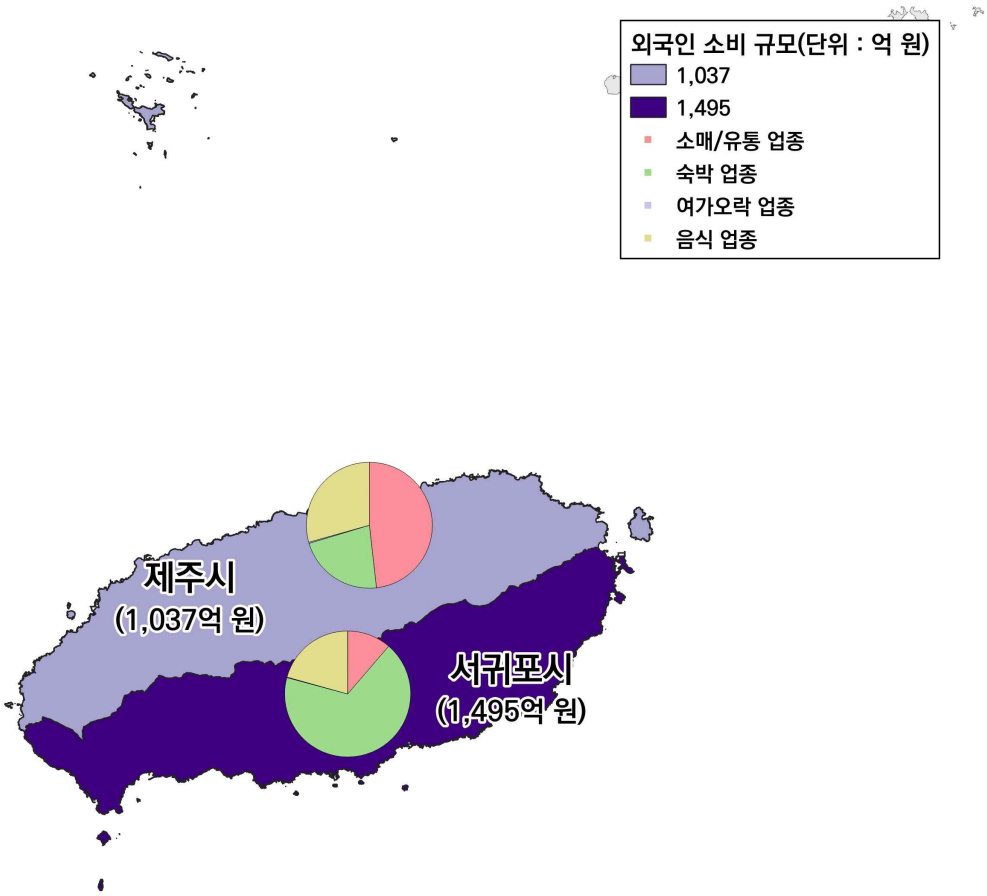


자료: 나이스지니데이타(주) 참고하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 제주연안, 제주시는 소매/유통 업종(48.2%), 서귀포시는 숙박 업종(67.9%) 비중 높아

- 2024년 제주연안의 외국인 관광 소비 매출액은 총 2,533억 원으로, 서귀포시에서 1,495억 원, 제주시에서 1,037억 원의 외국인 관광 소비가 발생함
- 제주시의 경우 소매/유통 업종의 소비 매출액(500억 원, 48.2%)이 서귀포시(169억 원, 11.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서귀포시에서는 숙박업종의 소비 매출액(1,015억 원, 67.9%)이 제주시(230억 원, 22.1%)보다 높게 나타남

〈그림 15〉 제주연안 외국인 해양관광 소비 업종별 분포 (2024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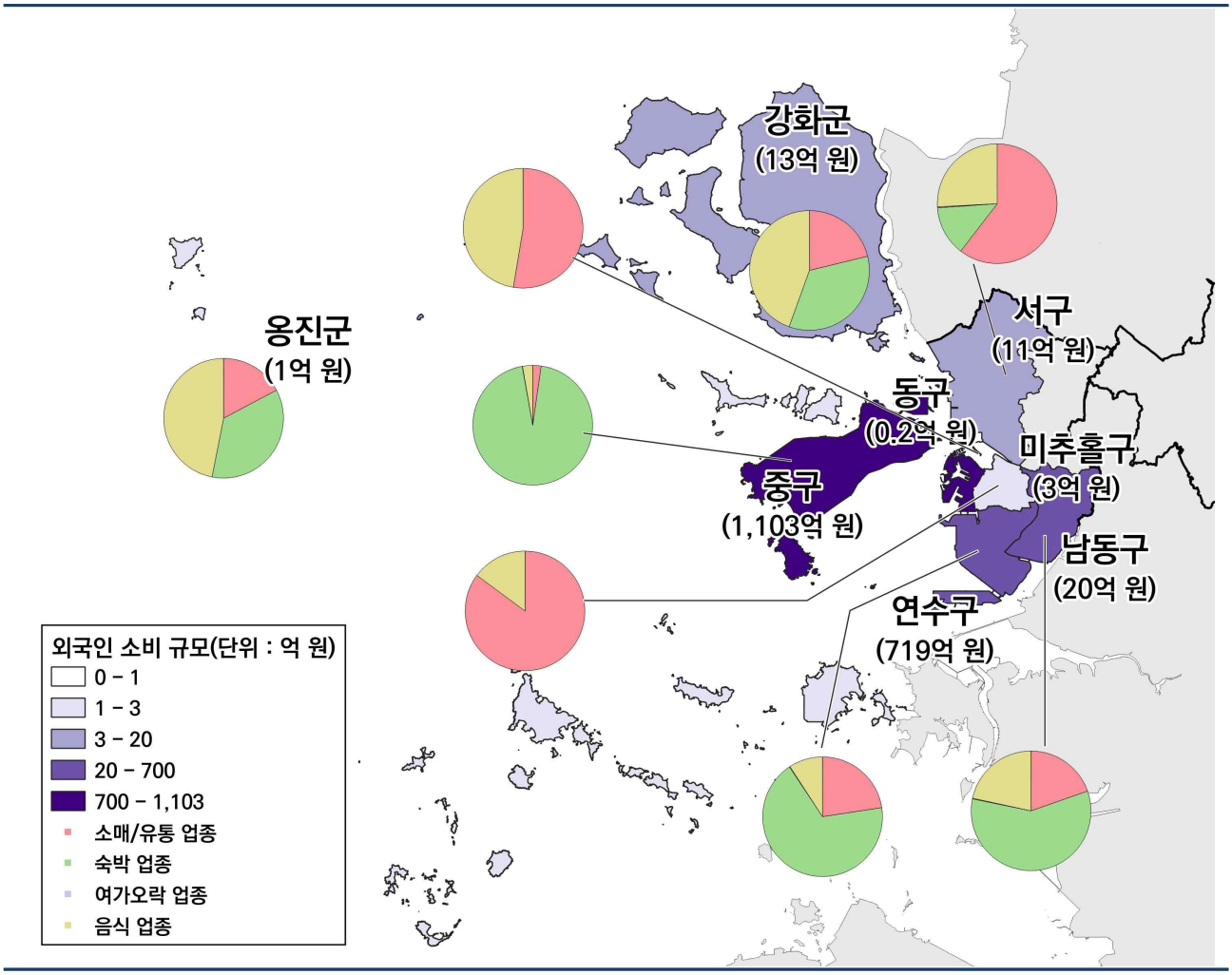


자료: 나이스지니데이타(주) 참고하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 인천연안, 숙박업종의 비중이 83.1%로 가장 크며, 중구에 주로 집중

- 2024년 인천연안의 외국인 관광 소비 매출액은 총 1,871억 원으로, 중구(1,103억 원)와 연수구(719억 원)에서 전체 비중의 97.4%의 비중을 차지하여 공간적 양극화가 존재
- 중구의 숙박업종 비중이 94.9%로 매우 크게 나타나며, 상대적으로 상위권의 소비를 보이는 연수구(68.1%)와 남동구(58.6%)도 숙박업종의 비중이 높아 중구, 연수구, 남동구가 주요 체류 거점으로 보임
- 반면, 미추홀구, 서구, 전체 소비의 규모는 작지만, 소매/유통업종의 비중이 각각 84.9%, 60.4%로 크게 나타나므로, 쇼핑 거점으로 포지셔닝이 되어 있음

〈그림 16〉 인천연안 외국인 해양관광 소비 업종별 분포 (2024년 기준)



자료: 나이스지니데이타(주) 참고하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정책적 시사점

■ 외국인 해양관광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마련 필요

- 우리나라 해양관광 정책은 그동안 주로 내수시장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추진되어 왔으나, 해양관광시장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크고 외국인 관광객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내수 중심의 정책을 넘어 외국인 수요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임

- 특히 2025년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에 따라 제1차 해양레저관광 진흥 종합계획이 마련될 예정으로, 이 과정에서 외국인 해양관광 수요를 전략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포함되어야 함

- 이를 통해 국가 해양관광 전략은 국내 수요 확대와 더불어 글로벌 시장 대응을 동시에 견인하는 체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임

■ 외국인 관광활동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해양관광 상품 개발 필요

- 2024년 기준 상위 5개 국가별 외국인 관광객의 주요 활동은 국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에 맞춘 국가별 특화형 해양관광 상품 개발과 차별화된 전략 수립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표 2〉 주요 방한 국가별 외국인 관광객 활동 특성(2024년)

순위	국가	주요 관광활동
1위	일본	식도락 관광(88.3%), 뷰티/미용 관광(16.1%)
2위	중국	여가/위락/휴식(61.1%), 사업/전문활동(14.9%), 친구/친지 방문(14.1%),
3위	미국	여가/위락/휴식(41.3%), 사업/전문활동(29.1%), 친구/친지 방문(23.7%)
4위	대만	여가/위락/휴식(83.4%), 사업/전문활동(8.9%)
5위	베트남	여가/위락/휴식(54.1%), 친구/친지 방문(28.4%)

자료: 한국관광공사 국가별 방한여행(2024년 기준)

- 외국인 관광 소비는 여전히 서울·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전체의 약 83%)되어 있으며, 연안지역 소비는 약 10% 수준에 불과함. 연안지역 내에서도 부산(42.1%)과 제주(24.7%)에 소비가 편중되어 있어, 타 연안지역으로의 분산 정책이 절실히 요구됨

- 이를 위해서는 단순 숙박·쇼핑 중심의 기존 패턴을 넘어, 지역별 차별화된 해양관광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이 필요함

- 2024년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 1위인 일본 관광객은 수도권 방문 비중이 80.9%로 가장 높았으며, 주요 활동으로는 '식도락 관광(88.3%)' 참여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7] 이는 일본 관광객이 한국

7) 한국관광공사 국가별 방한여행(2024년 기준)

방문 시 도시권 중심의 단기 체류형 관광과 음식·미식 소비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줌. 따라서 일본 관광객을 연안지역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K-푸드 기반 해양관광 상품 개발이 필요함

- 2위를 기록한 중국 관광객은 '여가·위락·휴식(71.1%)' 활동 비중이 두드러져, 한국 여행 시 휴양·레저 중심의 체류형 관광 성향을 보임. 이에 따라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는 연안지역 리조트, 해양스파, 해양치유 프로그램 등 웰니스형 콘텐츠와 해변·섬을 배경으로 한 휴양형 패키지 육성이 요구됨[8)]

- 종합적으로, 외국인 시장에서는 국가별 선호 활동과 방문 패턴에 맞춘 정밀 타겟팅 전략이 필요함.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소비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연안지역 해양관광을 K-푸드(미식)·K-레저(체험)·K-웰니스(치유) 콘텐츠와 결합하여 외국인 소비를 지역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 K-컬처와 결합한 해양관광 콘텐츠 마련 필요

- 최근 전 세계적으로 K-컬처의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가 '오징어 게임'을 제치고 글로벌 시청 1위를 기록하면서 새로운 K-컬처 콘텐츠 열풍을 일으키고 있음

- 동시에, 이러한 K-컬처의 확산은 외국인 관광 수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애니메이션의 주요 배경이 되었던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K-컬처 콘텐츠와 결합된 관광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9)]

- 연안지역에서도 K-컬처와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필요가 있으며, 예컨대 연안지역 해변을 무대로 한 K-팝 페스티벌, 섬과 항만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애니메이션 촬영지 투어, 어촌과 미식을 결합한 K-푸드 해양축제 등의 콘텐츠 개발이 필요함

-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K-컬처 팬덤이 글로벌 차원에서 공고히 형성되어 있는 만큼, 이들의 문화적 선호를 해양관광 경험과 연결하는 것은 연안지역 해양관광의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기능할 수 있음

8) 한국관광공사 국가별 방한여행(2024년 기준)
9) 경향신문(2025.9.2.). "케데헌' 성지순례에…7월 외국인관광객 136만 '역대 최대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021529021 (검색일: 2025.9.5.)